

# 國際貿易과 經濟發展

林 鍾 哲\*

目	次
I. 經濟發展과 輸出——理論的 考察	II. 韓國의 經濟發展과 輸出
1. 國際貿易과 經濟發展	1. 一般의 特徵
2. Linder理論	2. 두개의 資本 非投入輸入
3. McKinnon理論	3. 輸出, 外資導入 및 經濟發展
4. Maizels理論	맺는말
5. Caves理論	

## I. 經濟發展과 輸出——理論的 考察

### 1. 國際貿易과 經濟發展

輸出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重商主義理論에부터 깊이 인식되어 왔으며<sup>(1)</sup> Adam Smith에 의해서는 그의 經濟理論의 基本骨格중 하나로서 詳述되었었다.<sup>(2)</sup> 歷史的으로 보더라도 貿易 특히 輸出은 資本主義經濟發展을 촉진해 오는 有力한 因子로서 작용하여 왔던 것이며 따라서 A. Marshall<sup>(3)</sup>이나 C. Furtado<sup>(4)</sup> 같은 學者들에 의해서는 경제발전은 언제나 貿易이라는 外的 衝擊에 의하여 觸發되어 왔으며 따라서 경제발전에 관한 일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商科大學 副教授

(1) cf. Thomas Mun, *England's Treasure by Foreign Trade*, 1664, reprinted by Basil Blackwell, Oxford, 1928.

(2) Smith는 國富를 年年의 勞動의 生産物 (annual produce of labour)이라고 규정하고 그 增大는 生産의인 勞動人口와 勞動生産性 (skill and dexterity)에 의존한다고 한 다음 이 勞動生産性은 分業에 의하여 提擡될 수 있는데 分業의 크기를 제약하는 조건으로서 市場의 규모를 지적하고 있다. 市場의 兩大部分 즉 國內市場과 海外市場중 國內市場은 人口의 1人當所得의 낮은 增加率로 인해 급속히 팽창할 수 없음을 반하여 당시의 海外市場은 급격히 팽창할 수 있었으므로 市場의 制約을 打破하여 分業을 高度化시켜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 貿易의, 그리고 그 무역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自由貿易主義의, 重要性이 Smith理論의 本質的인 한 體系로서 주장되었던 것이다. cf. A. Smith,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2 vols, Methuen.

(3) Alfred Marshall, *Principles of Economics*, 8ed. Macmillan, 1920.

(4) Celso Furtado, *Development and Underdevelopment*, Berkeley, 1964, pp. 64-65.

체의 논의는 무역이론의 分野에 속한다고까지 주장되어 왔었던 것이다. 그러나 新古典派 當時의 이론은 무역과 경제발전사이의 不可分한 관계를 주로 貿易利益 (gains from trade) 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였던 것이며 따라서 均衡貿易이란 想定下에서 交易條件을 중심으로 다루어 왔던 것이다. 이같은 理論分析의 토대가 된 것이 D. Ricardo의 靜態的인 比較優位說이었던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貿易의 국민경제적 효과를 所得과 관련하여 설명코자 한 첫 試圖은 B. Ohlin등 北歐學派에 속하는 學者들에 의해 이루어졌지만<sup>(5)</sup> 그 體系化와 完成은 J.M. Keynes에 의해 이루어졌으니 Keynes는 開放體系下的 國民經濟에 다음과 같은 關係式을 생각하였다.

$$Y=C+I+X-M \quad (1)$$

단  $Y$ =國民總支出

$C$ =消費

$I$ =投資

$X$ =財貨·用役의 輸出

$M$ =財貨·用役의 輸入

이들 巨視的인 經濟量의 增加를 일정한 기간에 관하여 볼 때 우선 그 增加額은

$$\Delta Y = \Delta C + \Delta I + \Delta X - \Delta M \quad (2)$$

이 되는데  $I$ 와  $X$ 는 國民所得과는 관계없이 獨立的으로 결정되고 나머지인  $C$ 와  $M$ 이 國民所得에 의해 영향받는데

$$C = cY$$

$$M = mY$$

라고 하면

$$\Delta Y = \frac{1}{1-c+m} (\Delta I + \Delta X) \quad (3)$$

라는 관계가 성립한다. 限界消費性向  $c$ 와 限界輸入性向  $m$ 의 合計의 逆數가 冪乘數이며 이것은 限界消費性向과 限界輸入性向이 一定할 경우 輸出增加가 크면 클수록 그 乘數倍만큼 國民所得은 커진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2—72년간에 있어 限界消費性向은 1962년의 최고 1.9386에서 1963년의 최저 0.4190까지 크게 變動하고 있지만 1962—72년 평균으로는 0.8701이고, 한편 限界

(5) cf. Bertil Ohlin, The Reparation Problem, A Discussion, *Economic Journal*, June, 1929, reprinted in H. Ellis and L. Metzler ed., *Readings in th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1950 및 *Interregional and International Trade*, 1933.

輸入性向도 1962년의 0.9488에서 1964년의 -0.4036까지 騰落을 보이고 있지만 같은 기간 중의 平均値는 0.3792였다. 그런데 같은 기간중 輸出은 年평균 29.9%라는 빠른 템포로 증가하여 왔으며 특히 1962-66년간의 年평균 27.3%에서 1967-71년의 30.5%로 加速化되고 있다. 그 결과 輸出高는 1962년의 54,813천달러에서 1972년의 1,624,088천달러로 무려 29.6배이상 커지고 있다. 그리하여 같은 기간중 12,209.8억원(1970年 不變市場價格)에서 30,265.4억원으로 2.5배가량 커진 國民總生産과 輸出 및 投資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Y=1.463(I+X)+1031.511$$

$$(r=0.986)$$

즉 1단위의 投資 및 輸出의 증가로 국민소득을 1.463단위 증가시켜 왔던 것이다. 이것은 輸出第一主義政策下에 강력한 輸出drive를 전개하여 輸出을 통한 經濟發展의 길에邁進해 온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다소 意外의 感を 줄만큼 낮은 乘數値라고 하지 않을 수 없

〈表 I-1〉

	Y 10억원	I+X 10억원
1962	1,220.98	162.84
1963	1,328.31	271.25
1964	1,441.99	245.24
1965	1,529.70	277.55
1966	1,719.18	439.77
1967	1,853.01	534.31
1968	2,087.12	744.08
1969	2,400.49	1,024.14
1970	2,589.26	1,085.89
1971	2,826.82	1,208.16
1972	3,026.54	1,304.63

$$Y=1.463(I+X)+1031.511 \quad R=0.986$$

다. 사실 日本의 경우를 보면 1878년 이후 1956년에 이르는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를 성립시키고 있는 것이다. (6)

$$1878-1927 \quad Y=2.3212(I+X)+1.3971$$

$$r^2=0.9324$$

$$1894-1915 \quad Y=2.8214(I+X)+0.994$$

$$r^2=0.6673$$

(6) 馬場 啓之助, 『貿易』, 1959, pp.17-23.

1919—1930  $Y=2.6674(I+X)+1.5153$   
 $r^2=0.9519$

1930—1940  $Y=1.7656(I+X)+8.152$   
 $r^2=0.9708$

1946—1950  $Y=2.711(I+X)+5.493$   
 $r^2=0.9644$

1950—1956  $Y=1.8689(I+X)+8.662$   
 $r^2=0.9941$

發展段階의 類似性을 감안할 때 韓國의 1960年代에 있어서의 貿易發展은 1894—1915년간의 日本貿易과 비교되는 것이므로 당시의 日本의 貿易乘數가 2.8214였는데 반하여 1962—72년간의 韓國의 그것이 1.463에 불과하다는 것은 대단히 낮은 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貿易과 經濟發展의 相互關係를 또다른 分析視角에서 接近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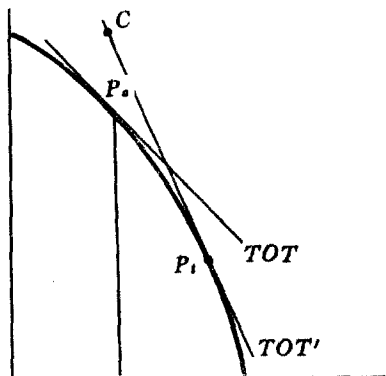
## 2. Linder 理論

개발도상국의 무역 특히 수출을 단순히 數量的인 관계에서 국민소득과 관련시켜 생각하지 않고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에 대한 그 戰略的인 意義를 강조하는 理論으로서 우리는 우선 S.B. Linder의 주장을 보아야 한다.<sup>(7)</sup> Linder는 國內資源의 再配分可能能力을 결여하고<sup>(8)</sup> 1人當所得이 生存水準에 있는 u國에 있어서는 무역이 시작되어도 資源再配分利益이 실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輸入競爭部門에서는 他部門으로 資源을 再配分할 능력이 없으므로 輸入에 의하여 압박되어 經濟狀態가 악화되면 이 部門은 점차로 消滅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sup>(9)</sup> 한편 輸出部門에서의 1人當所得은 무역이 시작됨에 따라 上昇하

(7) Staffan B. Linder, *An Essay on Trade and Transformation*, New York, 1961 및 *Trade and Trade Policy for Development*, New York, 1967의 兩書를 中心으로 展開되고 있다.

(8) Linder는 資源再配分能力의 缺如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封鎖體系下에서는  $P_0$ 에서 생산과 소비의 最適을 실현하고 있던 u國이 무역을 시작하면 交易條件線 TOT는 TOT'로 變化하고 生産의 最適은  $P_1$ 로, 소비의 最適은 C로 移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u國은  $P_0$ 에서  $P_1$ 로 生産의 最適을 바꾸는데 필요한 資源再配分을 할 能力을 缺如하고 있으므로 u國의 生産可能性은  $P_0$ 와 그 垂線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cf. Linder, *op. cit.*, pp. 24-26.

(9) *Ibid.*, p. 28.



겠지만 이 部門에 있어서도 역시 再配分能力이 없기 때문에 그 擴大됨은 그 部門에서의 人口의 再生産率과 資本形成率에 의존하게 된다. 그리하여 만일 이때 土地收穫遞減이 강하게 작용한다거나 海外需要의 停滯에서 交易條件이 악화한다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결국에는 다시 貿易開始前의 1人當所得水準으로 되돌아가든가 또는 한결음 더 나가 Bhagwati 流의 窮乏化成長에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貿易의 厚生上の 效果는 지극히 評價하기 어렵고 傳統的인 比較靜學的인 태두리는 이러한 變化를 分析하는데 부적합하다고 단정하고 있다.<sup>(10)</sup>

한편 生産要素를 재배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에서는 物的 資源을 人口增加보다 빠른 率로 축적하는 것이 容易하다. 그리고 무역이 개시되면 資源再配分利益이 생기므로 貿易下의 成長經路중에 挿入하지 않으면 안될  $Y_t$ 는 自給自足下의  $Y_t$ 와는 같을 수가 없다. 交易條件이 不利化하지 않는 한 再配分하지 않으면 안 될 資源總量이나 總消費가 커질수록 資源再配分利益은 絶對量이 커진다고 믿을 만한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따라서 自給自足下의 成長經路를

$$Y_{t+n} = Y_t e^{rn}$$

이라는 방정식으로 표시한다면 貿易下의 成長經路는

$$Y_{t+n} = (Y_t + cY_t) e^{rn}$$

으로 표시할 수 있다(이때  $n$ 은 單位時間數,  $e$ 는 定數(自然指數函數 및 對數函數의 底),  $r$ 은  $Y$ 의 成長率,  $c$ 는  $Y$ 의 一定比率로서 總所得에 직접비례하는 資源再配分利益을 표시한다). 그 결과 成長率이 같더라도 附加되는  $cY_t$ 가 複利로 증가하여 가기 때문에 貿易下와 自給自足下의 總所得의 絶對的 差는 遞增할 것이다.

貿易下의 成長率은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영향에 의해 自給自足下의 그것보다는 커질 것이다. 첫째 일단 무역이 개시되어 資源再配分利益이 얻어지고 總所得이 증대하고 부더는 自給自足下에서와 같은 成長率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 후의 各期間에 있어 總所得의 絶對的 增加量은 自給自足下에 있어서보다는 커져야 한다는 필요,<sup>(11)</sup> 둘째 무역개시의 결과로서 그 이후 經濟의 資源再配分效率이 개선되는 것, 셋째 技術進歩率에 변화가 생기는 것 등의 셋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Linder는 貿易下의 成長經路와 관련하여 經常資源配分利益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sup>(12)</sup> 이는 現存의 資源이나 소비가 再配分되는데서 생기는 이익

(10) *Ibid.*, pp. 28-45.

(11) 資源再配分利益 ( $cY$ )가 무역前의 所得에 追加되면 自給自足下와 同一한 成長率을 貿易下에서도 유지하려면 무역개시후의 各期間에 追加되는 所得의 絶對量은 自給自足下의 그것보다  $c$ 배만큼 커져야 하기 때문이다.

(12) *Ibid.*, p. 65.

뿐만 아니라 成長經濟에서는 일단 무역이 개시되면 資源의 增加分까지도 더 한층 有效하게 配分하는데서 생기는 개념으로서 各期間에서 所得의 增加分을 增大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自給自足下の 成長期에 終止符가 찍힐 때는 1回限의 資源再配分利益이 생기고 그 이후에는 經常資源再配分利益이 連續的으로 생겨 그 결과 所得은 끊임없이 複利的으로 成長해 간다고 Linder는 주장하고 있다. 그 결과 가장 유리한 경우 成長率은  $r(1+c)$ 가 되고 方程式은

$$Y_{t+n} = Y_t(1+c)e^{r(1+c)n}$$

이 된다고 한다. (13)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관련된 무역의 戰略的 意義에 관한 Linder의 理論은 그의 「經濟發展을 위한 貿易과 貿易政策」에서 좀 더 선명히 전개되고 있다. 그는 生産轉換 能力 즉 그가 말하는 國內生産要素의 再配分可能能力에 결함이 있는 개발도상국에 있어 무역은 生産能力의 利用에 대한 潜在的으로 중요한 지렛대作用效果 (leverage effect)를 갖고 있으므로 무역의 역할은 경제발전을 위한 단순한 엔진이 아니라 潜在的인 超엔진임을 강조하고 있다. (14) 後進國이 開發途上國이 되려면 大量的의 資本財를 合理的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資本財必要量의 극히 一部밖에 國內生産에 의한 공급이 불가능하므로 轉換能力에 障害가 생기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擴張輸入 (expansion import)이 불가피하게 된다. 한편 現存生産能力을 不變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과거의 擴張輸入을 置換하는 資本財형태로의 再投資輸入 (reinvestment import)도 필요한데 이를 一括하여 Linder는 投資輸入 (investment import)이라고 부른다. (15) 한편 現存生産能力을 완전히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輸入資本財의 豫備部品 및 非國內産의 一次産品の 輸入을 操業輸入 (operation import)이라고 부르고 再投資輸入과 이 操業輸入을 維持輸入 (maintenance import)이라고 부른다. 그리하여 이상을 전부 합하여 投入輸入 (input import)이라고 한다. (16) 이밖에도 개발도상국의 현실의 輸入은 生産過程과는 관계없는 輸入인 非投入輸入 (non-input import)을 얼마간 갖고 있다. 이같이 輸入의 諸概念을 규정 한 다음 Linder는 投入輸入의 總必要量은

$$M_I^+ = M_0^+ + M_i^+ = pC + ms_p \bar{Y}$$

로 표시할 수 있다고 본다. 단 이 경우  $M_I^+$ 는 投入輸入의 總最小必要量,  $M_0^+$ 는 操業輸入

(13) *Ibid.*, p. 66.

(14) S.B. Linder, *Trade and Trade Policy for Development*, 1967, p. 5.

(15) *Ibid.*, p. 11.

(16) *Ibid.*, pp. 11-12.

의 必要最小量,  $M_i^+$ 는 投資輸入의 最小必要量,  $p$ 는 國內要素 1單位當에 필요한 操業輸入의 비율 ( $p=M_0/C$ ),  $\bar{C}$ 는 總生産能力,  $C$ 는 現實의 生産能力,  $m$ 은 國內投資 1單位當에 필요한 投資輸入의 비율( $m=M_i/I_d$ ),  $s_p$ 는 事前的 總貯蓄性向,  $\bar{Y}$ 는 完全生産能力所得이다. (17)

한편 현실의 貯蓄과 投資사이에는

$$sY=I_d=\frac{M_i}{m}$$

라는 관계가 있어 貯蓄은  $M_i/m$ 이라는 제약이 있어 投資化하지 못하고 挫折되는 수가 있으며 또 輸入剩餘와는 兩立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18)

그러나 開發途上國의 경우 比較生産費說이 가정하고 있는 하나의 前提 즉 絶對的 生産力의 一般水準이 실제로 外國에서 需要될 수 있는 財貨의 충분한 量을 생산할 수 있게 할만큼 높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 아무 경험도 없는 市場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製品의 輸出努力을 해야 한다는 마케팅上의 不利도 있으므로 輸出에는 上限이 그어지게 마련이다. (19)

이처럼 開發途上國에 동시에 존재하는 輸出極大量과 輸入極小量사이의 輸出極大量이 매우 작아서 輸入極小量을 카바하지 못한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나라의 「심각한 外換갭」(acute foreign exchange gap)에 직면하고 있다고 Linder는 말하고 있으며 단일 輸出極大量이 輸入極小量을 카바했을 경우에는 外換갭은 潜在的인 갭이라고 한다. 왜 냐하면 輸入極小量과 輸出極大量이 존재하는 한 언제 심각한 外換갭이 나타날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20) 이같은 관계에서는 심각한 外換갭을 Linder는 「전통적 무역이론에 근거하여 수립된 最適의 支出政策 및 最適의 貿易政策이 실시되었다고 假定한 다음에 投入輸入을 위해 필요한 外換必要량과 經常計定去來 및 自生的 資本移動에 의해 그같은 輸入을 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外換量과의 差」라고 定義하고 있다. (21) 따라서 Linder에 따를 때 輸出은 단지 國內生産者를 위하여 國內市場과 本質적으로 다를 바 없는 擇一的인 販路를 제공함으로써 投資乘數와 마찬가지로 所得을 창조하는 機能을 하며 다만 공공롭게 貿易利益이라는 加外的 利潤을 가져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 自生的 資本移動과 더불어 심각한 外換갭을 카바함으로써 投入輸入을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고 그럼으로써 한편으로는 國內의 現實生産能力( $C$ )의 利用率( $M_0/p$ )을 높여 이를 完全生産能力( $\bar{C}$ ) 수준으로 끌어올

(17) *Ibid.*, pp. 16-21.

(18) *Ibid.*, pp. 17-20.

(19) *Ibid.*, pp. 34-42.

(20) *Ibid.*, p. 42.

(21) *Ibid.*, p. 43.

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國內貯蓄이 投資로 실현되는 것( $I_d = \frac{M_i}{m}$ )을 가능케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그 자체를 가능케 하는 死活的인 기능을 하는 것이며 따라서 경제발전 전에 지렛대作用을 하는 超엔진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貿易 특히 輸入은 經濟發展 즉 所得增大와의 단순한 量的 關係에서가 아니라 경제발전 그 자체를 일으키는 因果關係에서 파악해야 한다.

### 3. McKinnon 理論

이상과 같은 Linder의 理論에 대한 先驅的인 業績으로서 우리는 Ronald I. McKinnon의 주장을 소홀히 할 수 없다.<sup>(22)</sup>

McKinnon은 效果的인 工業成長을 위해 戰略的인 중요성을 갖는 財貨가 工業發展의 초기에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障礙가 되는데 輸出增大나 輸入代替가 그러한 隘路를 해소한다는 觀點下에서

$$P = \min.(\alpha K_d, \beta K_f), \alpha > 0, \beta > 0 \quad (M.1)$$

이라는 Leontief型 生産函數에 의한 理論을 전개한다(단  $P$ 는 潜在的 生産能力,  $K_d$ 는 國產의 資本財,  $K_f$ 는 外國產의 資本財이다). 固定된 極大平均消費性向을

$$\max. S = sY, 0 < s < 1 \quad (M.2)$$

로 표시할 때(단  $Y$ 는  $P$ 를 사용하여 國內에서 생산한 所得)

$$Y = P$$

를 우리는 假定할 수 있다. 또  $I_t = S_t + F_t$ (단  $F$ 는 外國資本 transfer)라고 한다. 그러면 國內所得은

$$\frac{dY}{dt} = \frac{dP}{dt}$$

가 되며  $\frac{dP}{dt}$ 는  $I$ 의 水準에 의존하는데  $P$  1單位는  $\frac{1}{\alpha}$ 의  $K_d$  및  $\frac{1}{\beta}$ 의  $K_f$ 를 필요로 하므로

$$\frac{dP}{dt} = \frac{1}{\frac{1}{\alpha} + \frac{1}{\beta}} I = \frac{1}{\frac{1}{\alpha} + \frac{1}{\beta}} sY$$

가 성립된다.  $\sigma = \frac{1}{\frac{1}{\alpha} + \frac{1}{\beta}}$ 이라고 한다면

$$\frac{dP}{dt} = \frac{dY}{dt} = \sigma sY$$

(22) Ronald I. McKinnon, 'Foreign Exchange Constraints in Economic Development and Efficient Aid Allocation,' *Economic Journal*, June, 1964.



가 되며

$$Y_t = Y_0 e^{\sigma s t} \text{ 또는 } P_t = P_0 e^{\sigma s t} \quad (\text{M. 3})$$

이며  $\sigma s$ 는 주어진 交易條件下에서 外國產資本財를 얻을 무한한 輸出機會가 있을 때의 成長率이다.

한편 輸出은

$$\max. E = \epsilon P, \quad 0 < \epsilon < 1 \quad (\text{M. 4})$$

이며 따라서  $\epsilon$ 가 너무 작아 外國產資本財를 輸入할 수 없을 때 成長率 $\sigma s$ 는 달성될 수 없고 隘路가 생긴다. 바꾸어 말하면  $I_{f t} = \dot{K}_{f t}$ 를 外國產資本財에 대한 投資라면  $\sigma s$ 의 달성을 위해서는 일정한 크기의  $I_{f t}$ 가 필요하다. 隘路를 면하려면  $I_{f t}$ 는 成長率이  $\sigma s$ 일 때  $\max. E$ 보다 작아야 한다. (M. 1)과 (M. 3)에서

$$I_{f t} = \frac{1}{\beta} \dot{P}_t = \frac{\sigma s}{\beta} P_0 e^{\sigma s t} = \frac{\sigma s}{\beta} P_t \quad (\text{M. 5})$$

를 얻으며 (M. 4)와 (M. 5)에서  $I_{f t} < \max. E$ 이기 위해서는

$$\beta \epsilon > \sigma s \quad (\text{M. 6})$$

이어야 하는데 이는 隘路를 면하려면  $S_t = \max. S_t$  및  $E_t < \max. E_t$ 일 것을 요구한다. 즉 (M. 6)이 성립하려면 큰  $\beta$ (外國產資本財에 대한 작은 수요) 또는 큰  $\epsilon$ (수출가능성)이 필요한 것이다.

$\beta \epsilon < \sigma s$ 여서 隘路가 發生한다면, 즉  $E_t = \max. E_t$ 이고  $S_t < \max. S_t$ 이면  $I_{f t} = \max. E_t$ 이므로 (M. 5)에서

$$I_{f t} = \frac{1}{\beta} \dot{P}_t = \epsilon P$$

가 되며 이 方程式을 풀어

$$P_t = P_0 e^{\beta \epsilon t} \quad (\text{M.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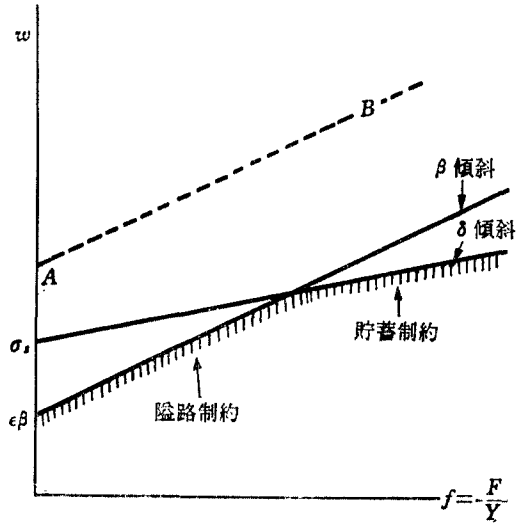
를 얻는다. 隘路를 가진 成長率(bottleneck growth rate)은  $\beta \epsilon$ 이고  $\beta \epsilon < \sigma s$ 이다. <圖I-1>은 이상의 결과를 外國資本 transfer가 成長率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나타낸 것이다.  $f = \frac{F}{Y}$ 라고 하고  $w$ 를 成長率이라고 할 때  $f$ 는 隘路가 존재할 때  $\epsilon$ 를 증대시키는, 즉 外國產資本財購買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f$ 는 貯蓄不足이 있을 때  $s$ 를 증가시키는 즉 國內外產資本財에 대한 총투자의 有效水準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즉

$$w = \beta(\epsilon + f) \quad (\text{단 } \beta(\epsilon + f) < \sigma(s + f) \text{ 일 경우}) \quad (\text{M. 8})$$

이는 또

$$w = \sigma(s + f) \quad (\text{단 } \beta(\epsilon + f) > \sigma(s + f) \text{ 일 경우}) \quad (\text{M. 9})$$

〈圖I-1〉



이 성립된다.

$\alpha > 0, \beta > 0$ 이므로  $\beta > \sigma = \frac{1}{\frac{1}{\alpha} + \frac{1}{\beta}}$ 이다. 그리하여 貯蓄制約이 있을 때보다는 隘路制約이

있을 경우 外國資本 transfer는 成長率에 대하여 보다 큰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外國產資本財에 대한 支出은 國內資本形成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3)

다음 資本財뿐만 아니라 消費財, 原料 및 置換用機械部品の 輸入도 필요한 경우를 생각하여 McKinnon은 그러한 輸入을  $M$ 으로 표시하고 (M. 1)을 다음과 같이 擴張한다.

$$P = \min. (\alpha K_d, \beta K_f, \eta M), \alpha > 0, \beta > 0, \eta > 1 \quad (M. 10)$$

$\eta > 1$ 이란 조건은 外國서 輸入한 投入高보다는 國民經濟의 產出高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經濟成長은  $M_t = \frac{1}{\eta} P_0 e^{\sigma t}$ 라는 率로 外國原料使用의 增大를 수반한다. 成長率이 持續

的이라면 輸出은 經常計定上의 輸入需要를 카바해야 하므로  $\epsilon > \frac{1}{\eta}$ 이어야 하고 만일 그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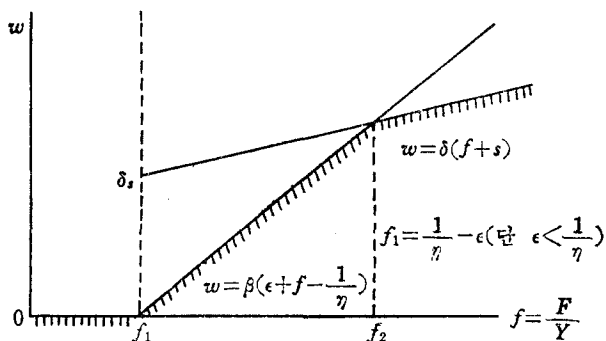
지 못할 경우 成長은 지속될 수 없다.  $\epsilon > \frac{1}{\eta}$ 이고  $\epsilon' = \epsilon - \frac{1}{\eta}$ 이라고 하면  $\epsilon'$ 는 經常計定輸入需要를 초과하는 經常產出高로서 外國產資本財輸入에 충당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따

라서 資本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epsilon' \beta < \sigma$ (隘路制約)이면  $\epsilon' \beta$ 가 成長率이고  $\epsilon' \beta > \sigma$ (貯蓄制約)이면  $\sigma$ 가 成長率이다. 한편  $\epsilon < \frac{1}{\eta}$ 이면 持續的 自主成長은 불가능하고 충분한 크기

의 外國資本 transfer  $f = \frac{F}{Y}$ 에 의해  $\epsilon + f > \frac{1}{\eta}$ 이 성립될 수 있다. 輸出이 經常的인 原料輸入을 카바하지 못하는 경우를 McKinnon은 〈圖I-2〉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

(23) *Ibid.*, pp. 389-392.

〈圖I-2〉



$f < f_1$ 인 成長率 零의 領域에서는 基本的 構造變化가 있기 전에는  $f$ 는 成長率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f > f_1$ 인 경우 外換의 利用可能性은 完全能力生産 및 資本蓄積을 가능케 하며 隘路效果는  $f_1$ 의 바로 右側에서 作用하게 되며  $f$ 가 충분히 커지면 貯蓄隘路가 支配하게 된다. 外國資本transfer가  $f_1 \sim f_2$ 의 領域안의 크기일 때, 그리고 適切히 이용되었을 때 成長率은 커지며 隘路가 소멸된다.<sup>(24)</sup>

다음에 McKinnon은 一定한 平均消費性向이라는 가정 대신에 所得의 크기에 따라 변동하는 限界消費性向  $\bar{s}$ 를 導入하여

$$\max. S = \bar{s}[Y - Y_0] \quad \text{단 } 1 > \bar{s} > 0, Y > Y_0 \quad (\text{M. 11})$$

라고 정의하고  $P_0$ 보다 높은 새 產出高에 관한 生産函數를

$$P - P_0 = \min. [\alpha K_d, \beta K_f, \eta M], \quad \alpha > 0, \beta > 0, \eta > 1, P > P_0 \quad (\text{M. 12})$$

로 표시한다.

所得이  $Y_0$ 이고 貯蓄이 零인 限 成長過程이 시작될 수 없으나 外援이 있을 때  $\bar{w}$ 라는 성장율이 가능해진다고 본다. 國內產出高水準  $P_0$ 에서 출발하여 資本係數가  $\sigma$ 일 때 성장율  $\bar{w}$ 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期首의 國際收支가 기여해야 할 크기는  $\frac{\bar{w}}{\sigma} P_0 = F_0 = I_0$ 이고  $S_t = \bar{s}[Y_t - Y_0]$  일때

$$I_t = S_t + F_t \quad (\text{M. 13})$$

이다.  $t$ 時點에 있어 國內生産은  $P_t = C_t + S_t$ 인데 반하여 總所得은  $Y_t + F_t = C_t + S_t + F_t = C_t + I_t$ 가 된다. 期首의 外援으로 인한 國際收支 balance  $F_0$ 는  $\bar{w}$ 라는 성장율을 가능케 하므로

(24) *Ibid.*, pp. 393-395.

$$P_t = P_0 e^{\bar{w}t}, Y_t = Y_0 e^{\bar{w}t} \quad (M. 14)$$

이며 이러한 成長率이 持續되기 위해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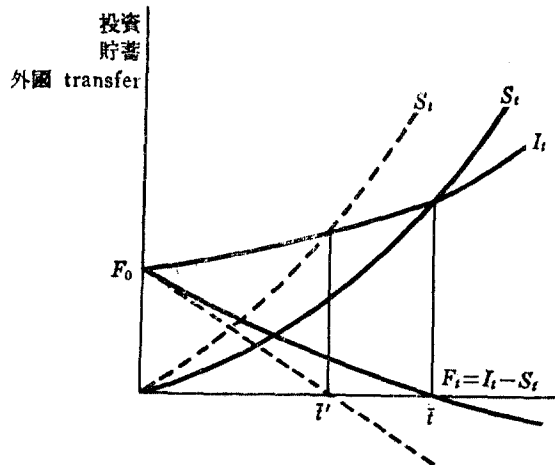
$$I_t = F_0 e^{\bar{w}t} \quad (M. 15)$$

라는 속도로 總投資가 커져가지 않으면 안된다. (M. 13), (M. 14), (M. 15)에서 國際收支 balance가 가져온 成長過程은

$$F_t = [F_0 - \bar{s}Y_0]e^{\bar{w}t} + \bar{s}Y, t=0 \quad F_t = F_0 \quad (M. 16)$$

으로 표시할 수 있다.  $F_t$ 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감소된다는 조건은 (M.16)에서  $F_0 - \bar{s}Y_0 < 0$  이어야 함을 요구하는데  $F_0 = \frac{\bar{w}}{\sigma} Y_0$ 이므로 그 조건은  $\frac{\bar{w}}{\sigma} < \bar{s}$  또는  $s' < \bar{s}$  즉 限界貯蓄性向  $\bar{s}$ 가 平均總貯蓄性向  $s'$ 보다 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圖I-3>



이러한 관계를 그는 <圖I-3>에서 밝혀주고 있다.  $S_t$ 와  $F_t$ 는 일정한 크기의 限界貯蓄性向  $\bar{s}$ 와 관련을 가지며  $t$ 는 外國資本transfer가 종결되는 時期를 나타낸다.  $t$ 를 넘어선 負의  $F_t$ 는  $\bar{w}$ 의 성장율을 유지하며 外債償還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는 (1) 消費率을 높이거나 (2) 投資를 증대시킴으로써 성장율을  $\bar{w}$ 이상으로 높히거나 (3) 過剩貯蓄으로 인해 Keynes的인 不況을 가져오거나 하게 된다. (25)

McKinnon은 熟練勞動不足의 경우까지도 고찰한 끝에 개발도상국이 外國資本transfer의 도움을 얻어 해결해 나가야 할 여러가지 隘路를 <圖I-4>와 같이 요약하고 있다.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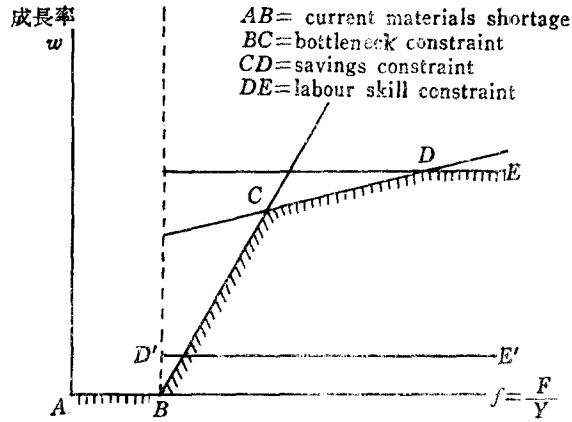
#### 4. Maizels의 理論

이같은 McKinnon의 理論은 그가 말하는 外國資本transfer를 輸出에 의하여 메꾸어야 할 外換需要의 한 부분이라고 풀이할 때 「輸出을 통한 경제발전」이라는 우리의 당면한 과

(25) *Ibid.*, pp. 396-398.

(26) *Ibid.*, p. 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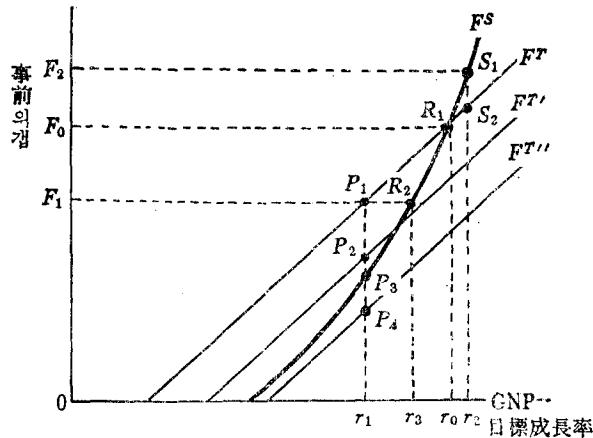
〈圖I-4〉



제를 해명하는데 援用할 수 있다. 물론 McKinnon이 말한 外國資本transfer는 援助이고 따라서 片務的인 購買力의 移轉이므로 輸出과는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지만 簡單化를 위해서라면 전혀 代置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사실 Alfred Maizels의 理論은 이러한 處서 출발하고 있다. (27)

그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세가지 制約을 Chenery 및 Strout에 따라, 첫째 人間의 技術(勞動熟練 및公私의 生産企業에서의 管理技能을 포함)의 利用可能性에 대한 制約, 둘째 (外國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資本借入까지도 포함한) 國內貯蓄供給의 不足이 投資에 課하는 制約 및 세째로 輸入 및 純借入에 과해지는 制約으로 본다. (28) 다음 그는 GNP의 一定한 目標成長率을 달성하는 데는 일정한 크기의 外國資本純流入이 필요하다고 보고 〈圖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X軸에 여러가지 目標計劃成長率  $r$ 을 표시하고  $r$ 의 各各의

〈圖I-5〉



(27) Alfred Maizels, *Export and Economic Growth of Developing Countries*, Cambridge, 1968.

(28) *Ibid.*, pp.53-54.

水準에 對應하여 요구되는 資本純流入을 Y軸上에서 표시한다. 輸出成長率이 주어졌을 때  $r$ 이 커짐에 따라 外資純流入必要量도 커진다. 線分 $F^T$ 는  $r$ 이 변화함에 따라 資本純流入에 의해 카바되어야 할 貿易갭을 나타내며 線分 $F^S$ 는 貯蓄갭의 그에 對應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sup>(29)</sup> 이같이 그는  $I < S$  및  $X < M$ 이라는 두개의 갭을 <圖I-5>에 의해 동시에 표시하고 있다.

$R_1$ 에서 두개의 事前갭 즉 事前貯蓄·投資갭과 事前輸入·輸出갭의 크기는 같고 計劃成長率이  $r_0$ 라면 必要純外國借入은  $\theta F_0$ 이며 이것만 調達된다면 그 경제는 計劃率대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밖의 計劃成長率下에서는 두개의 事前갭은 一致하지 않는다. 예컨대 成長率이  $r_0$ 以下에서는 貿易갭이 더 크고  $r_0$ 보다 큰 成長率下에서는 貯蓄갭이 더 클 것이다. 計劃成長率  $r_1 (r_1 < r_0)$ 에선 貿易갭은  $r_1 P_1 = OF_1$ 이나 貯蓄갭은  $r_1 P_3$ 에 불과하다. 그 결과  $P_1 P_3$ 의 過剩外資流入이 생겨나 消費支出이 늘고 貯蓄이 더 줄거나 減稅등에 의해 政府貯蓄이 줄어들므로써 事後的으로 두 갭이 一致된다. 한편 計劃成長率이  $r_2 (r_2 > r_0)$ 이면 事前的 貯蓄갭에 의해 결정된 外國資本純借入必要額은  $r_2 S_1 = OF_2$ 가 되는데 이것은 事前的 貿易갭보다  $S_1 S_2$ 가 더 초과되는 것이 되어 目標年度에 成長率 $r_2$ 와 一致되는 最小限의 水準以上으로 輸入을 증대시킬 수 있는 外換資源을 갖게 된다. 그리고 輸出增加率이 線分 $F^T$ 로 표시되는 이상으로 커진다면 事前的 貿易갭은 새로운 線分 $F^{T'}$ 로 표시된다. 이같이 더 커진 輸出增加率下에서는 成長率 $r_1$ 은  $r_1 P_2$ 의 外國資本純流入에 의해, 또는 그전보다  $P_1 P_2$ 만큼 적은 外國資本純流入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sup>(30)</sup> 이처럼 輸出이  $F^T$ 에서  $F^{T'}$ 로, 또  $F^{T''}$ 로 증가하지 않는 한 成長率을  $r_1$ 에서  $r_0$ 로, 또  $r_2$ 로 높여감에 따라 輸入·輸出의 갭은  $F_1$ 에서  $F_0$ 로 또 다시  $F_2$ 로 필연적으로 확대되는데 이같이 輸出과 經濟成長과의 關係를 Maizels는 <圖I-6>으로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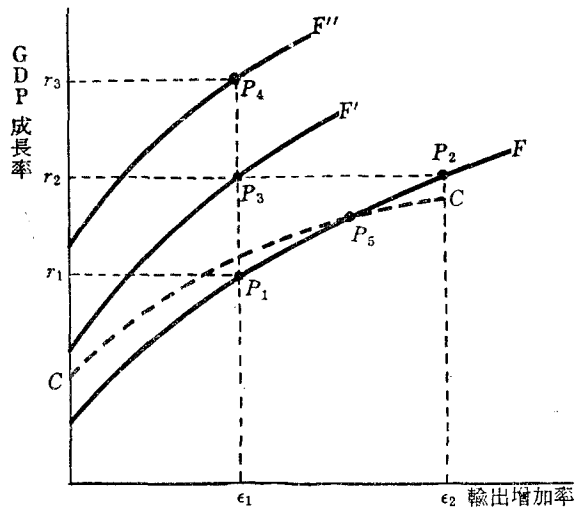
개발도상국 投資水準의 輸入資本財에 대한 依存度는 그 國民經濟의 工業部門의 발달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크며 따라서 그만큼 輸入能力의 大小에 左右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投資水準은 資本·產出高比를 통해 GDP成長率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므로 輸出增加率은 결국 產出高增加率과 對應的인 關係를 갖는다. <圖I-6>에서 線分 $F$ 는 GDP成長率  $r$ 이 輸出增加率  $\epsilon$ 의 변화에 대응하여 변화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輸出增加率이  $\epsilon_1$ 에서  $\epsilon_2$ 로 커지면 成長率은  $r_1$ 에서  $r_2$ 로 따라 커지는 것이다. 外國資本純流入이 있어  $F$ 가  $F'$ 으로 移行되면 일정한 輸出增加率  $\epsilon_1$ 下에서도 GDP成長率은  $r_1$ 에서  $r_2$ 로 커지게 된다. 한편 資本·產

(29) *Ibid.*, p. 54.

(30) *Ibid.*, pp. 54-56.

出高比의 限界値가 작아지면 一定한 輸出增加率과 外國資本純流入에 의해서도 보다 더 큰 成長率  $r_3$ 를 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F''$ 로 移行한  $F$ 曲線과  $r$  및  $\epsilon$ 의 관계에서 즉시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外國資本純流入이  $F'$ 와 같은 수준일 경우도 限界資本·產出高比가 커지면 點線CC로 표시되는 바와 같이 GDP成長率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31)

〈圖I-6〉



끝으로 Maizels는 貯蓄을 고찰하여 貯蓄과 GDP成長率사이에는 直線 $S''$ 로 나타낼 수 있는 것과 같은 관계가 존재함을 밝히고  $S'$ 曲線은 貯蓄이 輸出 및 非輸出所得의 函數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所得의 殘餘로서의 貯蓄은  $S_t$ 曲線으로 표시하고 있다. 成長率이  $r_1$ 이면 貯蓄은  $r_1P_1$ 이거나  $r_1P_2$ 이거나 둘 중 하나가 되는데 國內貯蓄의 事後的必要量은  $r_1P_3$ 에 불과하다. 따라서  $r_1$ 에서는  $P_1P_3$ (또는  $P_2P_3$ )의 貯蓄이 낭비되게 된다. 必要貯蓄量은 貯蓄函數  $S't$ 에서는 成長率이  $r_2$ 以下일 경우, 또 貯蓄函數  $S''t$ 에서는 成長率이  $r_3$ 以下일 경우 期待貯蓄量보다 작다. 成長率이 그보다도 더 클 경우에만 貯蓄制約이 작용하게 되며 정부의 租稅政策기타에 의해 貯蓄率이 커지지 않는 한 成長은 制約받게 된다고 Maizels는 말하고 있다.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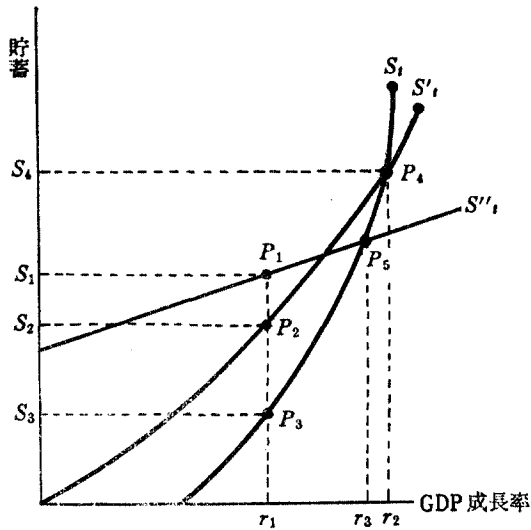
### 5. Caves 理論

끝으로 개발도상국의 「수출을 통한 經濟發展」努力에 있어 有益한 示唆를 주는 理論으로서 우리는 Richard Caves가 輸出에 先導된 成長 (export-led growth)과 輸出에 援助된 成長 (export-assisted growth)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종합하여 展開하고 있는 것을 注目할만 하

(31) *Ibid.*, pp. 62-64.

(32) *Ibid.*, pp. 64-66.

<圖I-7>



다. (33) 그의 理論은 先進國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의 말대로 「戰爭으로 인한 攪亂의 餘波와 그로부터의 再建의 所用-돌이숙에 있는 국가에 特別히 적용될 수 있는 것」(34)이므로 개발도상국 의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Caves는 '輸出이 그밖의 여러가지 有效需要要因 즉 成長要因에 비하여 特別히 가지고 있는 意義로서 다음과 같은 셋을 생각하고 있다. 첫째로 一國이 世界市場에 대하여 그 輸出可能財의 일정한 增加分을 판매할 경우 그것은 國內市場에 판매하는 경우에 비하여 相對價格을 덜 引下 해도 된다는 것, 즉 世界市場에 대한 輸出可能財의 生産 및 販賣에 대한 收益은 限界의 으로 보다 完滿히 遞減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輸出이 그 限界의인 경우에도 收益性을 갖는 다면 그 收益性은 輸出의 급격한 증대에 의해서 크게 손상되지는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둘째로 一國의 異例의인 輸出增加가 世界需要의 變化 또는 生産性의 上界에 기인하고 平價切下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몇개의 産業을 基盤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既存의 施設을 擴張하는 것과 새로운 플랜트를 건설하기 위해 投資하는 것과의 사이에 資本의 生産力差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같은 生産集中이 갖는 중요성은 쉽게 증명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끝으로 企業家들은 정부가 國際收支를 보호하기 위하여 總需要를 抑制하게 될 것이므로 需要增大는 持續될 수 없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輸出增加는 國際收支惡化로 인한 需要抑制와는

(33) Richard E. Caves, 'Export-led Growth: The Post-War Industrial Setting,' in W.A. Eltis, M. Scott and J.N. Wolfe, ed., *Induction, Growth and Trade, Essays in Honour of Sir Roy Harrod*, Oxford, 1970.

(34) *Ibid.*, p. 252.



완전히 관련이 없으므로 輸出增加를 豫期한 投資擴大에 별다른 不安을 갖지 않는다. 이것이 똑같은 有效需要의 構成因子이면서도 輸出이 國內消費 그밖의 有效需要要因과는 다른 점이라고 말한다.<sup>(35)</sup> 이들 세 要因중 첫째 것은 Ricardo流의 比較優位를 갖고 輸出市場에 轉換할 수 있었던 國內超過供給에 대해서는 완전히 수급할 수 있으며 둘째 要因은 그러한 差異가 과연 결정적인 것인가 하는데 대한 의문은 있겠지만 얼마간의 相異가 本質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이것은 國內生産要素의 完全한 再配分을 토대로 輸出을 통한 經濟發展을 하고자 하는 開發途上國의 경우 중대한 문제가 된다. 세계 要因은 그 輸出商品이 世界市場 또는 특정한 輸出對象國市場에서 차지하는 市場占據率이 작은 경우, 따라서 그 需要가 완전히 彈力的인 경우에는 완전히 妥當될 수 있다. 그러나 市場占據率이 매우 커서 需要를 완전히 彈力的이라고 假定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비록 市場占據率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輸出增加가 매우 급속하여 市場攪亂등을 이유로 輸入國에 의한 規制가 강제될 경우는 오히려 開發途上國을 위해서는 國內的인 有效需要因子보다 더 不安定한 것이 되고 만다.

이상과 같은 세가지 長點을 갖는 輸出에 대하여 Caves는 그것이 所得에 대하여 갖는 關係를 投資, 貯蓄 등과 함께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우선 여러가지로 定立할 수 있는 投資 I 와 所得 Y와의 관계는

$$I = a\Delta Y + \alpha Y \quad (C.1)$$

로 표시한다. 이때  $\alpha = 0$ 이면 이는 周知의 Harrod-Domar模型이 되는데  $\alpha$ 는 과거에 실현된 所得에서 誘發되는 投資比率을 가리키고 있다.

다음 貯蓄에 대해서도 輸出增加에 基盤을 둔 需要增加가 所得중 저축되는 비율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S = b\Delta Y + \beta Y \quad (C.2)$$

로 나타내고 있다.

다시 輸出과 輸入의 관계에 있어서는 貿易收支는 所得水準 및 이와는 獨立하여 投資水準과 關係를 갖는다고 보고

$$X - M = \pi I - \mu Y \quad (C.3)$$

으로 나타낸다. 단 이때  $\pi > 0$ ,  $\mu > 0$ 이다.

이 體系에 대한 注入(injection)이 漏出(leakage)의 크기와 같다고 보면

$$S = I + (X - M) \quad (C.4)$$

(35) *Ibid.*, pp.244-45.

이 되는데 (C. 1), (C. 2) 및 (C. 3)을 (C. 4)式에 代入하여 이 方程式을 풀면 成長率  $g_1$ 은

$$g_1 = \frac{\Delta Y}{Y} = \frac{\alpha(1+\pi) - \mu - \beta}{b - a(1+\pi)} \quad (C.5)$$

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 단  $\mu$ 는 生産性上昇의 有利한 效果이다. 封鎖體系에서(즉  $\pi = \mu = 0$ )  $\alpha = b = 0$ 이면 (5)式은  $\beta/a$ 가 되는데 이는 Harrod의  $\frac{s}{c_r}$  또는 Domar의  $\alpha\sigma$ 와 같은 것이 된다.<sup>(36)</sup>

이상과 같은 輸出에 원조된 成長模型과 輸出에 先導된 成長模型은 本質的으로는 같은 것인데 Caves는 이를 다음과 같이 展開한다. 우선 概念的으로 輸出에 先導된 成長은 所得 支出의 그밖의 構成要素들의 增加率을 훨씬 앞서는 輸出增加率때문에 投資의 所望되는 比率이나 投資의 生産性중의 어느 하나 또는 둘 다를 上昇시키는 경우라고 생각하고 우선 높은 輸出增加率이 投資率에 미치는 效果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I/Y = \nu X/Y + \alpha \quad (C.1a)$$

여기에 經濟成長이 輸入의 share에 미치는 限界的인 效果를 追加하여 (C. 3)을

$$M/Y = m(\Delta Y/Y) - \mu \quad (C.3a)$$

라고 變形시킨 다음 (C. 4)의 均衡方程式을 援用하여

$$g_2 = \frac{\Delta Y}{Y} = \frac{\alpha - \mu - \beta}{b + m} + \frac{\nu + 1}{b + m} \cdot \frac{X}{Y} \quad (C.5a)$$

를 얻는다.<sup>(37)</sup> 결국 限界貯蓄性向, 限界輸入性向, 生産性上昇效果, 輸出所得增加에 誘發된 貯蓄比率이 작을수록, 또 投資誘發效果 및 輸出率이 높을수록 成長率은 커진다고 보고 生産性上昇이 현저할수록 貿易개은 축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 II. 韓國의 經濟發展과 輸出

### 1. 一般的 特徵

60년대 이후의 輸出은 前章에서 분석한 바와 같은 貿易乘數效果를 수반하면서 한국경제의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하여 왔다. 그런데 <表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2-72년간에 연평균 40.1%라는 급속한 輸出增大를 실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國內外的인 要因의 복잡한 작용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우선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世界貿易은 여러가지 요인에 힘입은 世界經濟의 好況을 반영하여 1962-72년에 있어 수출은 연평균

(36) *Ibid.*, pp. 238-39.

(37) *Ibid.*, p. 240.

11.0%, 수입은 10.8%라는 놀라운 속도로 伸張하였다. 더구나 이를 1962—66년간과 1967—72년간으로 나누어 고찰하면 前半期에 있어 각기 연평균 8.9%와 9.1%였던 세계수출 및 수입은 後半期에 있어서는 12.8%와 12.3%로 더욱 加速的으로 伸張되어 갔다. 이같은

〈表II-1〉

韓國貿易의 發展

(단위 百萬달러)

	世界 輸出總額		韓國 輸出總額		世界 輸出 比重 %	世界 總輸入額		韓國 總輸入額		世界 輸入 比重 %	彈性值	
	輸出總額	增加率 %	輸出總額	增加率 %		總輸入額	增加率 %	總輸入額	增加率 %		輸出	輸入
1962	124,700	5.1	54.8	34.1	0.04	132,400	6.3	421.8	33.4	0.32	5.41	6.55
1963	136,000	9.1	86.8	58.4	0.06	143,400	8.3	560.3	32.8	0.39	7.04	3.60
1964	152,500	12.1	119.1	37.2	0.08	160,800	12.1	404.4	-27.8	0.25	3.07	-2.30
1965	165,400	8.5	175.1	47.1	0.11	175,600	9.2	463.4	14.6	0.26	5.12	1.72
1966	181,300	9.6	250.3	43.0	0.14	192,500	9.6	716.4	54.6	0.37	4.48	5.69
1967	191,200	5.5	320.2	27.9	0.17	202,600	5.2	996.2	39.1	0.49	5.37	7.11
1968	213,600	11.7	455.4	47.2	0.21	225,500	11.3	1,462.9	46.8	0.65	3.73	4.00
1969	244,800	14.6	622.5	36.7	0.25	256,900	13.9	1,823.6	24.7	0.71	2.64	1.69
1970	280,800	14.7	835.2	34.2	0.30	294,400	14.6	1,983.0	8.8	0.67	2.34	0.60
1971	314,000	11.8	1,067.6	27.8	0.34	329,900	12.1	2,394.3	20.7	0.73	2.30	1.75
1972	371,700	18.4	1,624.1	52.1	0.44	385,100	16.7	2,522.0	5.3	0.65	3.12	0.29
평균		11.0		40.1			10.8		23.0		4.06	2.80

세계무역의 순조로운 발전이 한국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준 것이다.

그런데 〈表II-1〉에서 보듯 그 기간중에 있어 한국수출 및 수입의 彈性値는 수출의 경우 4.06이고 수입의 경우는 2.80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무역이 급격히 伸張되어 세계수출 및 세계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기 0.04%에서 0.44%로, 그리고 0.32%에서 0.65%로 커질 수 있었던 것은 세계시장의 유리한 변화라는 外的 要因에만 기인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國內的인 經濟條件의 변화에 힘입은 바가 더 큰 것인데 輸出增大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輸出商品構造의 變化이다. 〈表II-2〉에서 보듯 1962년만 해도 수출총액중 1次產品이 차지하는 비중은 73.0%에 달하고 있었으며 製品別로 보더라도 原資材 및 中間財가 차지하는 비중이 80.7%에 달했으며 輕工業 및 重化學工業部門에서의 完製品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기 14.8% 및 4.4%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1963년에는 工產品이 차지하는 비중이 51.7%로 過半을 접하기에 이르렀고 그중에서도 輕工業製品의 수출이 1962년의 14.8%에서 39.8%로 25.0%포인트 급증하였다. 이같은 輸出商品構造의 개선은 그 이후에도 꾸준히 이루어져 工產品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5년에는 62.3%로, 1967년에는 70.1%로, 그리고 1970년에는 83.6%로

〈表II-2〉

商品類別輸出構造

(%)

	1次產品				工產品	原資材	輕工業 製 品	重 化 學 工業製品	未分類
	農產物	水產物	鑛山物	合 計					
1962	23.0	22.0	28.0	73.0	27.0	80.7	14.8	4.4	0.1
1963	13.3	15.5	19.5	48.3	51.7	54.3	39.8	5.7	0.2
1964	10.4	19.9	18.1	48.4	51.6	50.9	46.6	2.4	0.1
1965	8.7	13.7	15.3	37.7	62.3	38.9	57.6	3.4	0.1
1966	9.5	14.7	13.4	37.6	62.4	38.5	57.3	4.1	0.1
1967	4.7	14.7	10.5	29.9	70.1	32.8	62.0	5.2	0.0
1968	4.3	10.2	8.2	22.7	77.3	25.7	68.2	6.1	0.0
1969	4.2	9.4	7.4	21.0	79.0	23.0	66.9	10.1	0.0
1970	3.0	8.2	5.2	16.4	83.6	22.6	68.7	8.7	0.0
1971	2.8	7.7	3.5	14.0	86.0	17.9	72.5	9.6	0.0
1972	2.9	7.6	1.8	12.3	87.0	16.0	71.2	12.8	0.0

커지고 1972년에는 87.7%로서 거의 90%臺를 바라보게 되었다. 이같은 輸出商品構造의 변화는 우리의 輸出供給構造를 세계시장 특히 先進國市場에 있어서의 輸入需要構造에 크게 접근시킴으로써 輸出의 加速的인 增加를 가능케 하였던 것이다.

60년대 이후 우리의 輸出이 이처럼 急増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輸出商品構造가 변화함으로써 한국상품에 대한 先進國의 限界輸入性向이 커진 것, 그리고 60년대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말미암아 선진국의 輸入需要 그 자체가 커진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構造變化가 있다고 하더라도 一國의 輸出成長率은 外國의 經濟成長率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制約되는 것이다.<sup>(38)</sup> 그런데 1962—72년간을 통하여 우리나라 輸出品의 평균 80.9%를 수입하였던 先進國의 경우 그 經濟成長率은 1960—72년평균 4.88%에 불과하여 우리의 輸出成長率의 年平均値를 크게 下廻한다. 또한 1962—72년간에 우리나라 수출품의 평균 67.5%를 수입하였던 美國 및 日本의 經濟成長率은 加重하여 年平均 8.67%로서 그 역시 우리 輸出成長率을 크게 下廻하고 있다.<sup>(39)</sup> 따라서 60년대 이후 우리의 輸出이 크게 증가한 것은 外國의 所得 따라서 輸入需要라는 要因 이외의 또 다른 것에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輸出産業에 있어서의 生産性上昇이다. 즉 우리나라 輸出商品의 1人當生産量의 成長率이 우리나라 國民所得의 成長率을 上廻한다면 우리나라 輸出成長率은 國民所得成長率을 上廻할 수 있는 것이다.<sup>(40)</sup> 〈表II-3〉에서 보듯 60년대

(38) R.F. Harrod, *Towards a Dynamic Economics*, 1952, pp.108-111, ditto, *Economic Dynamics*, 1973, pp.135-144.

(39) 1964—72년에 있어 인플레이를 감안한 輸出의 實質增加率은 연평균 35.2%였다.

(40) R.F. Harrod. *Towards a Dynamic Economics*, 1952, pp.108-111 또는 H.G. Johnson,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Growth*, 1958, Chap. IV, 특히 p.99.

이후 한국의 主要輸出商品은 編物製品 (SITC 8414), 베니어합板(SITC 6312), 假髮(SITC 8999.5), 鋼板(SITC 674), 男子用內衣(SITC 8411.3)등을 비롯한 15個品目內外로서 1972년의 경우 이들 15個品目の 수출이 수출총액중 차지하는 비중은 904,203천달러로서 전체의 55.6%를 점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15個品目中 生系, 綿織物, 시멘트를 제외한 나머지 13個品目の 輸出增加率은 <表II-3>에서 보듯 전체로서의 輸出成長率을 모두 크게 上廻하고 있다.

<表II-3> 우리나라主要輸出商品

SITC Code	品명	수출 A	생산 B	수입 C	A/B%	A/C×100	수출 증가율
8414	편물제품	230,923 千弗		16,777 千弗		1,376.4	178.6
6312	베니어합板	153,623	3,703,315 F/S	31	88.8	495,558.1	44.7
8999.5	假髮	73,810		48		153,770.8	95.8
674	銅板	68,122	1,689,871%	22,933	6.4	297.0	115.8
8411.3	男子用內衣	62,666	701,554千枚	299	45.0	20,958.5	100.7
8411.1	男子用外衣	62,521		216		28,944.9	49.8
8510	신발類	55,404	73,423千足	6	39.0	923,400.0	81.4
261.3	生絲	53,943		29		186,010.3	32.4
6535	合織織物	38,511	124,718km	42,108	28.8	91.5	77.4
652	綿織物	34,849	223,409km	8,137	76.3	428.3	32.4
8411.2	女子用外衣	23,153		40		57,882.5	60.4
6612	시멘트	12,718	6,486,293%	106	18.4	11,998.1	36.8
7242	라디오	12,223	17,844千弗	6,458	68.5	189.3	99.8
6516	合織纖維絲	11,413		34,293		33.3	142.8
6291	타이어	10,324	1,057,162本	398	11.7	2,594.0	48.6

한편 이들 15개 주요수출품목중 生系, 男子用內衣를 제외한 13개品目の 國際競爭力을 relative share指數에 근거하여 日本의 그것과 비교하여 보면<表II-4>에서 보듯 타이어 (SITC 6291), 合織織物(SITC 6535), 鋼板, 트랜지스터 라디오(SITC 7242)등 4개의 品目を 제외하고서는 日本보다 큰 比較優位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relative share指數가 100以下여서 國際競爭力이 없다고 볼 수 있는 品目は 타이어 및 鋼板의 두 品目뿐이며 베니어합板, 시멘트(SITC 6612), 男子用外衣(SITC 8411.1), 編物製品, 假髮 등은 relative share指數의 크기가 1000단위를 넘고 있으며 특히 베니어합板과 假髮은 각기 584.1.30 및 6980.43이라는 높은 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해 綿織物(SITC 652), 女子用外衣(SITC 8411.2), 신발類(SITC 851) 등은 前述한 5개品目이 갖는 壓倒的인 경쟁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나 각기 473.91 내지 597.83이라는 상당히 큰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였던 것이다. 合織纖維絲(SITC 6516), 合織織物, 트랜지스터 라디오 등의 relative share指數가 113.04 내지 193.48로서 200미만이며 특히 輕工業製品수출의 가장 강력

〈表II-4〉 主要輸出商品의 比較優位 (1971)

SITC	品名	relative share 指數		優劣
		韓國	日本	
6291	타이어	69.57	159.69	劣
6312	베니어합板	5,841.30	181.11	優
6516	合纖維維絲	193.48	181.21	比等
652	綿織物	597.83	168.26	優
6535	合織織物	184.78	428.72	劣
6612	시멘트	1,073.91	144.89	優
674	銅板	82.61	333.79	劣
7242	라디오	113.04	691.04	劣
8411.1	男子用外衣	1,184.78	80.43	優
8411.2	女子用外衣	473.91	119.08	〃
8414	編物製品	1,417.39	73.42	〃
851	신발類	473.91	76.24	〃
8999.5	假髮	6,980.43	62.32	〃

註:  $S_i^h = \frac{X_i^h}{W^h} / \frac{X_i}{W} \times 100$ 의 等式에 依據

但  $W = \text{OECD} + \text{韓國의 總輸出}$

$W^h = \text{OECD} + \text{韓國의 } h \text{ 商品總輸出}$

資料: OECD, Trade by Commodity, Market Summaries, Export, 1971 Vol. 1~3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72

한 경쟁상대국중 하나인 日本에 비하여 강한 국제경쟁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들을 생산하는 化纖工業 및 電氣機器工業의 國內的 基盤이 脆弱하고 특히 그 原料 및 資本財의 對日輸入依存도가 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의 수출공급구조는 〈表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主要輸出對象地域

〈表II-5〉 貿易構造의 乖離, OECD와 韓國(1971) (단위千弗)

	OECD輸入	%	韓國輸出	%	離散
0	31,146,277	12.68	69,661	6.52	-48.58
1	3,364,787	1.37	15,277	1.43	4.38
2	26,984,776	10.98	94,875	8.89	-19.03
3	29,041,343	11.82	11,278	1.06	-91.03
4	1,761,553	0.72	80	0.01	-98.61
5	16,143,489	6.57	14,867	1.39	-78.84
6	47,311,907	19.25	328,356	30.76	59.79
7	64,312,869	26.17	87,441	8.19	-68.70
8	21,771,197	8.86	445,420	41.72	370.88
9	3,875,808	1.58	351	0.03	-98.10

資料: OECD, Trade by Commodities, Market Summary, Import, 1971, Vol. 1, Vol. 2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72

인 先進諸國의 輸入需要構造와는 평균 93.79라는 커라란 乖離를 보이고 있어 이같은 輸出供給과 輸入需要의 構造的 差異가 과거는 물론 앞으로의 輸出增大에 적지 않은 저해작용을 하여 왔고 또 한 것이 분명하다. 즉 外樣으로만 본다면 OECD諸國의 輸入은 60.85%까지가 SITC 5~8類인 工產品으로서 한국의 수출구조 (SITC 5~8類가 82.06%)와 기본적으로 合致되는 것 같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重化學工業製品的 輸入比가 32.74%로서 工產品輸入總額의 53.8%를 차지하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의 工產品輸出중 重化學工業이 차지하는 비중은 11.67%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록 工產品중심의 무역구조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質的인 乖離가 특히 1960年代 後半이후의 輸出增加率의 鈍化 및 輸出彈性値의 弱화로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相互間 貿易構造的 乖離가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地域別 輸出構造는 <表II-6>에서 보듯 더욱 더 先進國中心의인 것이 되어가고 있다. 즉 1962-66년간에는 對 先進國수출의 비중이 평균 75.2%이던 것이 1967-72년간에는 평균 85.6%로 10.4%포인트

<表II-6> 地域別輸出

	先 進 國		發 展 途 上 國		美 國		日 本		西 獨		홍 콩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1962	42.1	76.8	12.7	23.2	12.0	21.9	23.5	42.9	0.2	0.4	4.7	8.6
1963	57.6	66.4	29.2	33.6	24.3	28.0	24.8	28.6	1.3	1.5	9.1	10.5
1964	90.6	76.1	28.5	23.9	35.1	29.5	38.2	32.1	1.1	0.9	11.6	9.7
1965	130.8	74.7	44.3	25.3	61.7	35.2	44.0	25.1	3.2	1.8	10.8	6.2
1966	212.0	82.1	46.3	17.9	95.8	37.1	66.3	25.7	7.0	2.7	9.5	3.7
1967	267.2	83.4	53.0	16.6	137.4	42.9	84.7	26.5	5.2	1.6	15.2	4.7
1968	390.0	85.6	65.4	14.4	237.0	52.0	99.7	21.9	9.6	2.1	15.7	3.4
1969	524.1	84.2	98.4	15.8	315.7	50.7	133.3	21.4	16.4	2.6	24.4	3.9
1970	732.2	87.7	103.0	12.3	395.2	47.3	234.3	28.1	27.3	3.3	27.6	3.3
1971	918.3	86.0	149.3	14.0	531.8	49.8	262.0	24.5	31.4	2.9	41.4	3.9
1972	1,405.7	86.6	218.4	13.4	759.0	46.7	407.9	25.1	51.2	3.2	72.4	4.5

나 커지고 있다. 물론 내용적으로는 <表II-6>에서 알 수 있던 증전의 對日偏重輸出이 對美偏重的인 것으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資本去來 기타와의 關係에서 의미를 달리 하는 것일뿐 韓國輸出貿易의 基本特徵이란 점에서 볼 때는 輕工業製品중심적인 輸出商品構造와 아울러 아무런 變化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

한편 洲別, 國別로 우리의 輸出結合度指數를 중심으로 우리의 輸出地域構造를 본다면 <表II-7> 및 <表II-8>과 같다. <表II-7>을 볼 때 1962년에 있어 地域別로 본 한국의 수출은 65.14%가 아시아洲에 集中되고 있어 그 結合度指數는 421.62에 달하고 있으며 그 다음

이 22.10%를 차지하는 北美洲로서 結合度指數는 120.63이다. 우리의 二大輸出對象國인 日本, 美國이 있는 이들 두 洲를 제외한 나머지 洲에 대한 結合度指數는 平均值를 크게 下廻하며 특히 世界輸入의 50.52%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洲에 대한 輸出結合度指數는 22.74에 불과했다. 1972년에 있어서는 1960년대 후반에 있어서의 對美輸出激增의 결과로 北美洲에 대한 輸出結合度指數는 244.97로 커져 그간 輸出增加率이 현저히 떨어진 對日輸出로 해서 전체로서의 輸出結合度指數가 245.12로 줄어든 아시아洲에 대한 그것과 비등해졌다.

〈表II-7〉 洲別輸出結合度指數 (1962 및 1972)

	1972					1962				
	輸入總額	世界總輸入중比率	各洲에 대한 韓國의 輸出	韓國總輸出중比率	輸出結合度指數	輸入總額	世界總輸入중比率	各洲에 대한 韓國의 輸出	韓國總輸出중比率	輸出結合度指數
	百萬弗	%	千弗	%		百萬弗	%	千弗	%	
亞 洲	56,816	14.85	591,192	36.40	245.12	20,397	15.45	35,703	65.14	421.62
歐 洲	200,279	52.35	164,757	10.14	19.37	66,696	50.52	6,298	11.49	22.74
北美洲	79,543	20.79	827,036	50.93	244.97	24,187	18.32	12,117	22.10	120.63
南美洲	22,450	5.87	4,043	0.25	4.26	10,190	7.72	369	0.67	8.68
大洋洲	10,690	2.79	18,324	1.13	40.50	4,860	3.68	177	0.32	8.70
阿 洲	12,800	3.35	25,253	1.55	46.27	5,690	4.31	49	0.08	1.86

資料 : IMF, IFS

韓銀, 『經濟總計年報』, 1963年版 및 1973年版서 作成.

그리고 大洋洲 및 아프리카洲에 대한 輸出結合度指數는 각기 40.50 및 46.27로 1962년의 8.90 및 1.86에서 크게 상승하였지만 이제는 世界총수입의 52.35%를 접하게 된 유럽洲에 대한 輸出結合度指數는 19.37로 오히려 3.37포인트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1962년에 비해서는 크게 平準化되었다고는 하지만 輸出結合度指數의 洲別隔差는 여전히 커서 不安定한 輸出構造의 持續을 반영하고 있다.

다음 이를 國別로 보면 1962년에 있어 輸出結合度指數가 100을 넘는 국가는 自由中國(1,427.7), 日本(998.2), 泰國(178.9) 및 美國(175.2)의 네 나라였다. 그런데 絕對額 및 地域內比重이란 두가지 觀點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대상국인 이들 12개국<sup>(41)</sup> 중 1972년에 있어 輸出結合度指數가 100을 넘는 국가는 日本(482.0), 인도네시아(400.6), 美國(321.8), 自由中國(168.3), 泰國(105.2)의 5개국에 불과하며 그밖의 7개국과의 輸出結合度指數는 단순산술평균으로 33.8에 불과하다. 이는 1962년에 있어서의 캐나다, 西獨 등을 비롯한 7개 주요수출대상국과의 輸出結合度指數의 단순산술평균이 14.8이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개

(41) 이들 12개국(단 62년은 11개국)이 수출총액중 차지하는 비율은 1962년엔 75.6%였으며 1972년에는 87.0%에 달하고 있다.



〈表II-8〉

國別輸出結合度指數

(1962 및 1972)

	1972					1962				
	輸入總額	世界總輸入 入중比率	韓國으로 부터의 輸入	韓國總輸出 出중比率	輸出結合 度指數	輸入總額	世界總輸入 入중比率	各國에 대한 韓國 輸出	韓國總輸出 出중比率	輸出結合 度指數
	百萬弗	%	千弗	%		百萬弗	%	千弗	%	
美國	55,555	0.1452	758,975	0.4673	321.8	16,463	0.1247	11,976	0.2185	175.2
日本	19,934	0.0521	407,876	0.2511	482.0	5,665	0.0429	23,483	0.4284	998.2
캐나다	19,815	0.0518	58,915	0.0363	70.1	5,840	0.0443	142	0.0026	5.9
西獨	37,673	0.0985	51,195	0.0315	32.0	12,278	0.0930	244	0.0045	4.8
和蘭	16,313	0.0426	32,976	0.0203	47.6	5,377	0.0407	723	0.0004	1.0
英國	23,641	0.0618	28,680	0.0177	28.6	12,970	0.0983	1,632	0.0298	30.3
印尼	1,262	0.0033	21,467	0.0132	400.6					
中國	2,256	0.0059	16,131	0.0099	168.3	229	0.0017	1,354	0.0247	1427.7
벨쑤	15,123	0.0395	13,359	0.0082	20.8	4,591	0.0348	251	0.0046	13.2
스웨덴	7,487	0.0196	9,484	0.0058	29.8	3,114	0.0236	228	0.0042	17.6
프랑스	24,960	0.0652	8,187	0.0050	7.7	7,571	0.0574	974	0.0178	31.0
泰國	1,336	0.0035	5,958	0.0037	105.2	545	0.0041	405	0.0074	178.9

資料：韓銀, 『經濟統計年報』, 1963年版 및 1973年版서 作成.

IMF, IFS

선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國別로는 지극히 편중되어 불안정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國別輸出構造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겠다.

2. 두개의 겹과 非投入輸入

60년대 이후의 輸出이 이처럼 급격하게 증대된 것은 방대한 無償의 외국원조에 의하여 1950년대에 이룩된 工業生産力에 뒷받침된 바도 있지만 그보다 좀 더 직접적이며 훨씬 더 중요한 원인은 1962년 이후 한국에서 試圖된 計劃的 開發이란 國民的인 經濟政策이 국내저축공급이 허용하는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總投資를 불러 일으켰으며 이로 인하여 확대된 財蓄과 投資의 겹이 有償 및 無償의 외국원조 즉 投資源泉의 海外調達에 의해서 補填되지 못하게 된 까닭에 유일한 脫出口로서 輸出드라이브가 강행되었다는 것이다. 즉 1954—61년간에는 12.0%에 불과하여 비록 연평균 경제성장율을 4.4%라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하였지만, 國內貯蓄率 3.7%와는 8.1%의 겹을 보였을 뿐이었던 國內總投資率이 1962—66년간에는 16.6%로, 1967—71년에는 다시 26.3%로 크게 提高되어 같은 기간중의 國民貯蓄率이 각기 연평균 6.9% 및 14.8%로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축과 투자의 겹은 1962—66년의 9.7%에서 1967—71년의 11.5%로 커졌고 1962—72년의 11년간을 통한 연평균으로는 국민저축율이 11.1%임에 반하여 총투자율은 21.4%로서 저축과 투자의 겹이 연평균 10.3%에 달하였다.

이같이 확대된 저축과 투자의 겹은 二重的으로 輸出과 輸入의 겹을 확대시켰으니 첫째

〈表II-9〉

二重의 갭(1962-72)

(GNP에 대한 %)

	S	I	$S-I$ (A)	X	M	$X-M$ (B)	A-B	$g\left(\frac{\Delta Y}{Y}\right)$
1962	1.6	13.0	-11.4	3.5	11.6	-8.1	-3.3	3.1
63	6.3	18.5	-12.2	3.5	13.5	-10.0	-2.2	8.8
64	7.3	14.6	-7.3	4.0	9.2	-5.2	-2.1	8.6
65	7.5	15.1	-7.6	5.2	9.8	-4.6	-3.0	6.1
66	11.8	21.7	-9.9	7.1	13.8	-6.7	-3.2	12.4
67	11.9	22.1	-10.2	8.9	17.3	-8.4	-1.8	7.8
68	13.6	26.8	-13.2	11.3	22.4	-11.1	-2.1	12.6
69	17.5	29.8	-12.3	12.9	24.3	-11.4	-0.9	15.0
70	16.3	27.2	-10.9	14.7	24.8	-10.1	-0.8	7.9
71	14.5	25.6	-11.1	16.3	27.4	-11.1	0.0	9.2
72	14.6	20.9	-6.3	21.3	26.5	-5.2	-1.1	7.0
62-66평균	6.9	16.6	-9.7	4.7	12.6	-7.9	-1.8	7.8
67-71평균	14.8	26.3	-11.5	12.8	23.2	-10.4	-1.1	10.5
62-72평균	11.1	21.4	-10.3	10.0	18.2	-8.2	-2.1	9.0

資料: 한국은행

는 國內的으로 강행된 貯蓄增大드라이브의 一環으로서 半意圖的으로 조성된 인플레이의 결과 國內外相對價格構造를 歪曲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그리고 둘째는  $I+X=S+M$ 이라는 국민소득균형조건의 당연한 작용으로서 직접적으로 貿易갭은 확대되었던 것이다. 表II-2~9에서 보듯 輸出과 輸入의 갭은 1962-66년의 연평균 7.9%에서 1967-71년의 10.4%로 확대되어 갔으며 1962-72년간의 평균은 8.2%인데 이것은 같은 기간중 연평균 7.8%에서 10.5%로, 그리고 1962-72년간을 통해서는 9.2%로 提高된 경제성장률, 그리고 이러한 경제성장률을 실현시킨 최대의 요인인 投資率의 遞增에 精確하게 對應하는 것이다.

國內生産要素의 再配分可能能力을 缺如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인 한국이 1961년에 10.6%에 불과하였던 製造業의 비중을 1972년의 25.2%로 크게 提高시키는 構造變動을 실현시키는 가운데 연평균 9.0%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규모의 投入輸入이 필요했던 것이며 이러한 사정의 당연한 결과로서 우리의 輸入依存度는 1962년의 11.6%에서 1972년의 26.5%로 급격히 提高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같이 수입수요가 급격한 팽창을 보이게 됨에 따라 外換壓力은 더욱 커졌던 것은 당연한 것이며 또 그 당연한 對應策으로서 輸出드라이브가 輸出第一主義라는 政策口號下에 강행되었고 이러한 政策努力의 결과<sup>(42)</sup> 輸出규모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62년의 54,813천달러에서 1972년의 1,624,

(42) 1960年代의 輸出增加가 정부의 강력한 政策支援下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査定한 輸出目標額의 실현을 위하여 指令經濟의 特徵下에 이루어졌던 것임은 拙稿「1960年代 貿易發展에 대한 一考案」(其一), 『貿易研究』, 第3卷 第1號에 詳論되어 있다.

088천달러로 29.6배나 커졌고 GNP에 대한 비중도 3.5%에서 21.3%로 6배이상 커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貿易赤字의 규모는 1962-66년의 연평균 376,040천달러, 총액으로는 1,880,201천달러에서 1967-71년의 연평균 1,072,017천달러, 총액으로는 5,360,087천달러로 2.85배이상 커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計劃的開發이 시도된지 11년간에 무역적자의 총액은 무려 8,138,202천달러에 달하였으며 연평균액으로는 739,837천달러라는 방대한 크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처럼 방대한 무역적자가 전부 國內生産要素의 再配分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投入輸入을 하는 가운데서 발생된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물론 기본적인 赤字要因은 강력한 輸出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1972년현재 1,624,088천달러에 이르렀을 뿐인 「輸出의 極大量」<sup>(43)</sup>에 歸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輸出의 極大量과의 相互關聯下에 「外換갭」<sup>(44)</sup>을 발생시키는 또 하나의 要因인 「輸入의 極小量」<sup>(45)</sup>을 볼 때 그것이 부질없는 外換壓迫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필요불가결한 최소의 投入輸入만으로 억제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表II-10>에서 試算된 바와 같이 非投入輸入의 크기는 절대액에 있어서는 1962년의 51,232천달러에서 1972년의 591,698천달러로 11.5배이상 커졌고 총수입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중도 12.1%에서 23.5%로 커지고 있다.<sup>(46)</sup> 더구나 1962-66년간은 예컨대 1963-64년의 品貴·인플레이가 겹쳤던 때

(43) S.B. Linder, *Trade and Trade Policy for Development*, New York, 1967, pp.34-41.

(44) *Ibid*, pp.42-50. 특히 Linder는 輸出의 極大量이 매우 작아서 輸入極小量은 카마할 수 없는 경우의 外換갭을 「심각한 外換갭」(an acute foreign exchange gap)이라고 부르고 있다. S.B. Linder, *op. cit.*, p.42.

(45) *Ibid*, pp.11-22.

(46) 非投入輸入의 算出은 지극히 恣意的이나 다음과 같이 하였다. 식료품 및 산 동물(SITC 0類)의 경우 穀類 및 同調製品(SITC 04)은 1962년의 1人當供給(輸入 및 國內生産에 의한 공급)水準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輸入需要만을, 酪農製品 및 鳥卵은 粉乳(SITC 0222)만을, 雪糖 및 同調製品은 原糖(SITC 0611) 및 糖蜜(SITC 0615)만을 投入輸入으로 보고 그밖의 것을 非投入輸入으로 算定하였고 飲料 및 煙草(SITC 1類)는 전부 非投入輸入으로, 化學品(SITC 5類)중에서는 醫藥品중 糞石(SITC 5415)만을 非投入輸入으로, 原料別製品(SITC 6類)중에서는 가죽 및 가죽製品(SITC 61), 고무製品(SITC 62), 목재품 및 코르크製品(SITC 63), 종이, 板紙 및 同製品(SITC 64)의 전부를 非投入輸入으로, 機械類 및 運搬用機器類(SITC 7類)의 경우는 家庭用電氣機器(SITC 7250)만을 非投入輸入으로, 그리고 雜製品(SITC 8類)의 경우는 室內衛生用品, 暖房機器 및 照明機器(SITC 81), 家具(SITC 82), 旅行用具, 핸드백 및 同類似品(SITC 83), 衣類(SITC 84), 신발類(SITC 85), 映畫필름(SITC 8630) 및 雜製品(SITC 89)등을 非投入輸入으로, 未分類(SITC 9類)商品은 그 전부를 非投入輸入으로 보았다. 이러한 恣意的 區分은 산 동물(SITC 00)을 비롯한 0類商品, 연초 및 연초제품(SITC 12), 신문용지(SITC 6411.130)와 印刷用紙(SITC 6419.5)등 중의 다수의 것이 당연히 投入輸入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原糖(SITC 0611)에 대해서도 穀類에 대한 것과 동일한 加工이 있었어야 하고 醫藥品중에는 治療 및 豫防用的 醫藥品을 제외한 모든 것이 非投入輸入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電氣機器중에는 家庭用電氣機器이외의 허다한 商品類에서 분명한 非投入輸入을 가려내어야 했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表II-10>의 分類는 종래 SITC 0類, 6類, 8類 및 9類전부를 消費財=非投入輸入으로 보던 종래의 통속적인 분류에서 크게 개선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기본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것이다.

〈表II-10〉 非投入輸入의 推移 (단위 千弗)

	總輸入 A	非投入輸入 B	B/A%	0	1	5	6	7	8	9
1962	421,782	51,232	12.1	41,389	86	—	4,096	347	3,847	1,467
63	560,273	125,427	22.4	115,753	326	656	3,232	345	3,917	1,198
64	404,351	183,231	45.3	175,798	124	390	2,394	159	3,100	1,266
65	463,442	93,702	20.2	87,121	186	727	1,994	184	3,313	177
66	716,441	146,606	23.3	134,849	266	803	4,045	294	5,919	30
67	996,246	103,449	10.4	85,247	783	1,111	6,398	826	8,939	144
68	1,462,873	284,742	19.5	193,088	1,390	1,672	10,568	1,967	25,613	444
69	1,823,612	559,523	30.7	504,868	1,709	919	10,718	2,441	37,963	905
70	1,983,973	502,636	25.3	452,943	1,637	1,064	15,327	2,798	28,111	756
71	2,394,320	623,469	26.0	553,771	3,820	1,420	18,906	2,709	41,799	1,044
72	2,522,002	591,698	23.5	506,065	7,885	1,641	19,372	1,432	55,142	171

에는 安定政策의 一環으로서 非投入輸入의 규모가 일시 커졌다가 그러한 波動이 수습된 다음에는 절대액에 있어서나 相對的인 비중면에 있어서나 줄어드는 경향이 보였던 것이 1967년 이후에 있어서는 趨勢의으로 커져 절대액으로 보아 5억달러臺, 상대적 비중으로는 25%臺에 定着되는 經濟體質을 나타내고 있다. (47) 이 때문에 外換策은 不當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不當하게 확대된 外換策이 한국의 國際收支事情에 미치는 효과, 그 相對的 比重은 〈表II-11〉을 봄으로써 짐작할 수 있다. 1967-72년간에 있어 經常計定上 赤字幅은 年평

〈表II-11〉 韓國의 國際收支 (1962-72) (단위 百萬弗)

	經 常 計 定			資 本 計 定			誤差 및 漏 落	外換保有 高의 增減	
	貿易計定	貿易外計定	經常計定 赤字	移轉計定	長期資本	短期資本			資本計定 赤字
1962	-335.3	+43.3	-292.0	+236.5	-1.8	-6.7	+228.0	-1.6	-38.4
63	-410.2	+7.4	-402.8	+259.5	+60.2	+18.4	+338.1	-1.0	-37.2
64	-245.8	+24.8	-221.0	+194.9	+27.5	-1.0	+221.4	-1.1	+4.9
65	-245.2	+46.6	-198.6	+203.3	+16.6	-29.2	+190.7	-2.0	+9.9
66	-429.6	+106.6	-323.0	+219.6	+183.6	-84.6	+318.6	+4.4	+98.9
67	-574.2	+157.1	-417.1	+225.2	+277.7	-96.9	+406.0	+11.1	+111.4
68	-839.4	+156.2	-683.2	+226.1	+416.8	+19.4	+662.3	+4.1	+34.5
69	-991.7	+197.7	-794.4	+245.8	+428.6	+126.3	+800.7	-6.3	+161.8
70	-922.0	+119.3	-802.7	+180.2	+414.5	+224.2	+818.9	-16.2	+16.8
71	-1,046.0	+27.9	-1,018.1	+170.6	+427.3	+407.1	+10,050.0	+13.1	-41.6
72	-574.5	+33.5	-541.0	+169.8	+247.6	+82.3	+499.7	+41.3	+171.7

資料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各年號

(47) 非投入輸入의 존재가 價格水準一般을 억제하고 輸出業者에게 貨幣的 誘因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하고 있는 肯定的인 가능성도 이러한 特異體質의인 循環메카니즘과 關聯되는 것이라 하겠다.

709.4백만달러에 불과한데 非投入輸入이 차지하는 크기는 444.4백만달러이었으므로 적절한 국내경제정책에 의하여 過多한 소비가 적절히 규제되었다라면 연간 赤字幅은 265.4백만달러에 불과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外換에 대한 壓力減少로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無償의 원조를 포함한 外國資本에 대한 依存度는 연평균 698.8백만달러에서 254.8백만달러로, 즉 대략 36.4%水準으로 줄어들었을 것이다. 물론 非投入輸入의 대부분<sup>(48)</sup>을 차지하고 있던 穀類輸入이 生計費 특히 英鎊係數가 높은 輸出産業勤勞者의 그것을 낮춰 輸出코스트의 上昇을 한편으로는 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勞動生産性を 상승시켰으며 또 국민경제전체를 본다면 이같은 방대한 非投入輸入으로 인한 價格一般의 安定은 가리울 수 없는 사실이다. 사실 제1차 5개년계획기간중에 연평균 16.84%에 달했던 인플레이가 제2차 5개년기간중에는 7.82%로 수습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역적자의 크기가 前期의 연평균 375.6백만달러에서 後期の 1,072.0백만달러로 3배가량 커진 代償關係trade off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非投入輸入이 이같이 코스트 다운, 수출산업의 노동생산성상승 및 물가안정에 공헌하였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輸入競爭産業 특히 農業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므로써 國內에 있어서의 産業間 聯關關係를 파괴하여 對外依存을 더욱 높이고 농업부문에 있어서의 生産性上昇을 억제하였고 또 그나마 提高된 生産性上昇의 이익이 輸入財와의 競爭으로 강제된 低價格으로 말미암아 소비자에게 轉承되어 농촌경제의 相對的 惡化를 가져옴으로써 國內需要의 확대를 막고 國內需要增大를 바탕으로 한 生産能力上昇을 위한 低邊擴大를 저해하였다.

非投入輸入의 輸出增大促進이란 肯定的 機能은 上述한 여러가지 否定的 機能에 의해 당연히 相計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같은 構造的인 면에서의 功罪가 相殺될 때 現象的인 면에서의 作用 즉 外換擴張大膽 逆機能이 오히려 浮刻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3. 輸出, 外資導入 및 經濟發展

수출이 발전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超엔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발전도상국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결함, 특히 構造上의 치명적인 결점에 비추어 볼 때 異論이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볼 때 19세기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엔진機能도 못하고 있음은 貿易과 經濟發展, 그 결과로서의 富의 享有에서 날이 갈수록 배제되고 있는 발전도상국의 현실, 국제경제의 不均等發展에서 충분히 看破할 수 있다.<sup>(49)</sup> 수출이 기대되는 구실을 못

(48) 1967-72년중 2,296.0백만달러로서 그 기간중의 非投入輸入총액 2,665.5백만달러의 86.9%를 점하고 있다.

(49) 발전도상국이 세계수출에서 점하는 비율은 1962년의 22.94%에서 1972년의 19.24%로 3.70%포인트나 줄어들고 있다.

할 때 발전도상국으로의 國際資本의 흐름이 이를 補助해야 할 것이지만 商業的인 打算에서 흐르는 民間資本이나 政治的 또는 人道的 見地에서 흐르는 政府援助 (official flow)나 모두 이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부족하다. (50)

한국경제의 경우 <表II-1>에서 보듯 1962-72년 평균수출증가율은 40.1%로서 세계수출의 증가율 11.0%를 3.8배이상 上廻하고 이 기간중의 外資導入총액은 3,462.0백만달러로서 같은 기간중의 GNP총액 56,199.0백만달러의 6.16%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輸出과 경제성장사이의 상관관계는 그렇게 크지 못하다.

<表II-12> 輸出, 外資 및 GDP成長率

年度	G D P			중투자중 국내지축비율 A %	A로제한 GDP성장율 %	수 출		외자도입액 (도착기준) 백만달러
	금액 10억원	증가율%				금액 백만달러	증가율%	
1962	1,127.77	2.4	12.0	0.29	54.8	34.0	7.3	
63	1,225.24	8.6	33.8	2.91	86.8	58.4	71.7	
64	1,335.61	9.0	50.8	4.57	119.1	37.2	24.0	
65	1,407.98	5.4	49.6	2.68	175.1	47.0	48.1	
66	1,574.57	11.8	54.6	6.44	250.3	42.9	197.3	
67	1,674.87	6.4	54.0	3.46	320.2	27.9	237.3	
68	1,876.05	12.0	51.0	6.12	455.4	42.2	357.8	
69	2,155.84	14.9	58.8	8.76	622.5	36.7	560.5	
70	2,325.98	7.9	60.1	4.75	835.2	34.2	548.1	
71	2,538.80	9.1	56.9	5.18	1,067.6	27.8	691.5	
72	2,710.10	6.7	71.7 <sup>p</sup>	4.80	1,624.1	52.1	7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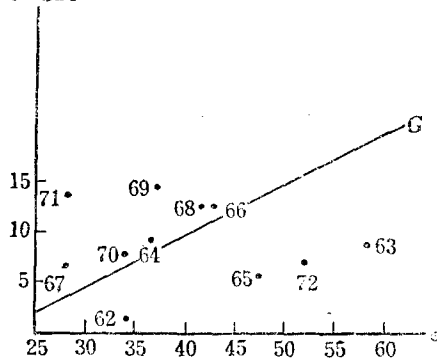
註 : p. 잠정추계  
資料 : 한국은행

첫째 수출은 원래 海外所得의 函數로서 外生的인 것인 바 <表II-5>에서도 보듯 우리의 경제발전의 단계에 따라서 공급구조가 우리의 주요수출대상국인 美國, 日本의 그것과 크게 乖離되어 세계소득의 安定된 增加에 맞맞춰 安定的 增加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S.B. Linder가 말하는 重複需要의 缺如도 그 한가지 說明要因이 되겠다. 둘째로 한국경제의 구조가 아직도 수출과 밀접한 聯關係를 갖지 않는 부문의 비중이 큰 일종의 二重經濟 (dual economy)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세계로는 수출은 生産과 國內市場 그리고 世界需要와 相對價格이라는 經濟的 要因에 의해서보다는 政策樹立當

(50) 1960년대를 통한 발전도상국의 援助受取額은 DAC諸國으로부터의 93,924백만달러를 포함하여 104,554백만달러에 불과하다. DAC加盟國의 援助實績이 그 GNP에 대하여 갖는 비율도 1961년의 0.95%에서 1969년의 0.73%로 하락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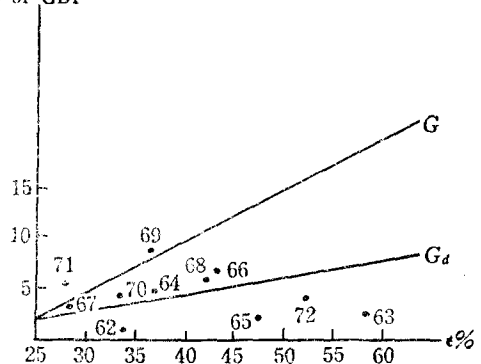
局이 恣意的으로 설정한 輸出目標라는 政策的 恣意와 이를 강제, 管轄하는 수단으로서의 財政, 金融면에서의 補助金體系에 더 크게 의존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한편 gross term인 輸出의 附加價值生産性이 낮음으로 해서 net term인 GNP 또는 GDP와는 乖離를 보일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끝으로 아직도 한국은 輸出보다는 國內需要가 경제 발전을 主導하는 낮은 발전단계에 있으므로 輸出增加率이 經濟成長率을 支撐한다기보다는 그 反對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생각해야 할 것이다.

r of GDP <圖II-1>



(a)

r of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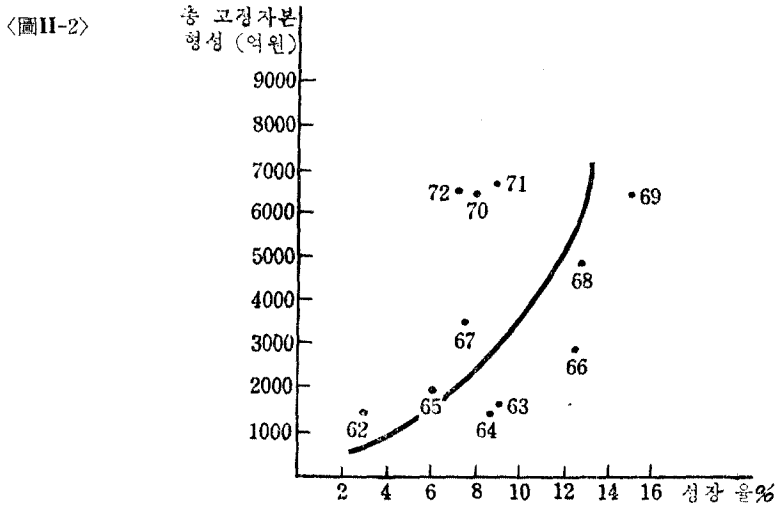
(b)

이러한 여러가지 요인의 존재로 말미암아 수출증가율과 경제성장율사이의 상관관계는 <圖II-1>에서 보듯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 더구나 수출증가율은 1962-66년의 44.0%에서 1967-72년의 36.8%로 하락하고 있음에 반하여 경제성장율은 7.8%에서 9.9%로 상승하고 있으므로 예컨대 3個年移動平均등 통계적 조작에 의하여 불규칙적인 변동을 제거하면 輸出增加率이 낮을수록 경제성장율이 높다는 패러독스가 뚜렷해진다. 따라서 수출증가율과 경제성장율사이에서 당연히 존재하여야 할 관계를 Maizels의 모형에 맞춰 그린 다음 다소 무리이기는 하지만 free hand method에 의해 추세를 그린 것이 <圖II-1>이다. 이때 (a)는 수출증가율과 경제성장율사이의 관계를 G曲線으로 표시한 것이고 (b)는 外資導入에 따르는 技術傳播效果가 없었다고 가정하여 GDP성장율을 총투자율중 國民貯蓄율이 차지하는 비율로 수정하여 外資導入이 없었다고 생각될 경우에 실현되었을 假想的인 GDP成長率과 수출증가율 사이의 관계를 Gd曲線으로 표시한 것이다. (b)에 있어 G와 Gd 두 곡선의 거리는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은 Gulhati가 말하는 Incremental Capital-Output Ratio가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示唆하며<sup>(51)</sup> 이는 全産業의 限界固定資本係數가  $I_t/\Delta Y_t$ 로는 1962-66년

(51) R.I. Gulhati, "the 'Need' for Foreign Resources, Absorptive Capacity and Debt Servicing Capacity," in J.H. Adler, ed., *Capital Move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1967, pp.250-254.

평균의 1.9971에서 1967—1971년평균의 3.0004로, 그리고 1972년에는 3.8479로 커지고 있으며 1년의 lag을 둔  $I_{t-1}/\Delta Y_t$ 으로는 같은 기간중 1.5963에서 2.5312를 거쳐 3.9733으로 커져가고 있다는 것과 對應된다.<sup>(52)</sup>

다음 貯蓄과의 관계는 <圖II-2>에서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國內總固定資本形成으로 저축을 대표시켜 이를 해마다의 경제성장율과 관련시킬 때 그사이에 는 수출증가율과의 사이에 있어서보다는 확실히 더 뚜렷한 상관관계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한국경제가 아직은 輸出에 의해서가 아니라 投資에 의해서 따라서 그 源泉인 저축에 의해서 지배되는 단계에 있는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GNP성장율과의 상관관계는 輸出 또는 그 增加率보다는 輸入 또는 그 증가율과의 사이에서 훨씬 더 크다. 이것은 한국경제



에 있어 수출이 아직도 輸入需要의 큰 부분을 카바하지 못하고 있으며<sup>(53)</sup> 輸入은 한편으로는 構造的으로 投入輸入이라는 특성과 관련되어 생산의 과정에서 GNP의 증가에 직접 관련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量的으로 貯蓄의 상당한 부분이 借款輸入이라는 형태로의 外的 源泉으로부터의 貯蓄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사실의 당연한 결과이다.

## 맺 는 말

한국경제에 있어 GNP성장기여율이라는 macro 指標와는 상관없이 수출이 景氣浮揚의

(52) 韓國銀行, 『한국의 국민소득』, 1973, pp.196-7.

(53) 1962-72년간의 수출증액은 5,611,114천달러로 같은 기간중의 수입총액 13,749,314천달러의 40.81%를 카바한데 불과하다. 수출에 의한 수입카바率は 1962년의 13.0%에서 1972년의 64.4%로 크게 提高되고 있다.



支柱로서 기능하여 온 것은 사실이며 個個의 産業의 경우를 볼 때 輸入代替의 단계를 완전히 벗어나 월등히 큰 比較優位를 가진 수출산업으로 발전되어간 산업도 한 둘이 아니다. 그러나 수출과 GNP, 그리고 그 각각의 변화율사이에는 理論이 가리키는 엄격한 因果關係가 아직은 定立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물론 발전도상국에 있어 수출은 有效需要의 큰 부분으로서, 또 같은 말이지만 産業을 위해서는 製品판매를 위한 市場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國內貯蓄을 投資로 전환시키는 觸媒로서 그리고 外的 源泉으로부터의 貯蓄을 상각하는 戰略的인 수단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輸出을 통한 경제발전」의 10년에 걸친 노력을 해 온 한국경제의 현실을 분석할 때 國內市場의 飽和에 앞서는 일종의 飢餓輸出드라이브에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관련시킬 때에도 커다란 벽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